

해 외 출 장 계 획 서

출장명: 한국의 농업부문투융자 정책의 개선방향 도출을 위한 네덜란드와 EU 공동농업정책 현지조사

1. 출장목적

- FTA 농업분야 투융자 성과 및 통상전략 방향에 관한 연구수행에 있어, 한국의 농업부문투융자 정책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네덜란드와 EU 현지조사
 - 네덜란드의 농업정책 및 농산물 수출전략 조사
 - EU 공동농업정책 조사
- FTA 체결국(한·EU FTA 2011.7월 발효) 농업 및 농정 현황 조사(해외농업 연구보고서 작성시 반영)

2. 출장기간, 출장자, 출장지

소속	출장자	직위	출장기간	출장지
FTA 이행지원센터	석준호	부연구위원	2019년 9월22일(일) ~9월27일(금) (4박 6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벨기에 브뤼셀
FTA 이행지원센터	유주영	위촉연구원	2019년 9월22일(일) ~9월27일(금) (4박 6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벨기에 브뤼셀

3. 주요 출장내용

1) 와게닝겐 대학 연구소(네덜란드)

- 토지가 부족하고 내수시장 규모가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 수출 세계2위 경쟁력을 갖게 된 요인 조사(품질경쟁력, 정부 정책 등)
 - 정부의 수출 진흥정책과 지급대상(개인, 마케팅보드) 조사
 - 네덜란드에는 Rabobank, Coop 등 크게 성공한 협동조합(마케팅보드)이 많음. 협동조합이 발달한 배경 및 농업정책 조사
- 네덜란드 농업예산의 구성 전략 및 지출현황 조사

- 네덜란드 농업예산 구성 및 지출 전략조사(분야, 비중, 투자액 등)
- 네덜란드 농정 트렌드 조사
- 한국의 관주도 농업 R&D와 자본투자와 반대로, 네덜란드정부는 농업분야 자본투입을 줄이고 민관협력을 통해 효율성을 높임.
 - 네덜란드의 민관협력방식과 효율성증진 전략 조사
- 네덜란드는 2011년 2월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TOP 9' 신산업정책을 발표함. 농식품, 원예, 첨단기술, 에너지, 물류, 물 분야 등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 및 투자하기로 함.
 - 'TOP 9' 정책의 지금까지의 성과와 '20년 이후 'TOP 9' 2기 정책 계획 조사
- 와게닝겐 대학 연구소는 농업분야 세계 1위로 우수한 농업인재를 양성하고 있음.
 - 높은 농업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학 전략과 정부 지원정책 유형과 성과조사

2) 주 벨기에 EU대한민국 대사관 및 EU본부(벨기에)

- 주 벨기에 EU대한민국 대사관 및 EU본부 전문가 면담을 통해, 현재 EU 공동농업정책과 차기(2021~2027) EU 공동농업정책의 공통점·차이점을 분석하여 i) 새로운 농정 트렌드 파악, ii) 한국 농업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 도출, iii) EU 공동농업정책과 유사한 방식의 남·북간 공동농업정책 강구 및 모델 적용 고안
 - 현재 및 차기(2021~2027) EU 공동농업정책 비교 분석하고 새로운 농정 트렌드를 파악함.
 - 한국 농업정책의 변천과정, 현황, 여건변화, 문제점 등을 고려해볼 때 EU 공동농업정책 사례를 바탕으로 시사점 도출 및 한국 농정의 개선을 위한 방향제시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 ※ 직불제: 차기 EU CAP의 직불금 상한과 인상된 중소농에 대한 ha당 지급단가는 우리나라 쌀 직불제 개편방안(하후상박 기초)을 농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함.

- ※ 청년농 직불금: 우리나라도 EU와 같이 청년농 지원에 많은 정책자금을 집행하고 있음. 하지만 농지획득의 어려움으로 정착률이 높지 않음. 농지이용을 위한 정책지원 담보 수준에 따른 청년농 직불금 강화 효과 수준과 관련 정책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 ※ 기후·환경관련 영농활동: 기후·환경관련 영농활동 강화를 위한 직불제 증액을 위해 농가들의 상호준수(Cross Compliance)의무가 중요함. 이와 같은 의무기준의 적절성을 파악한 후 향후 우리나라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고찰함.
- 새로운 국가들이 EU에 편입되면서 경제수준 및 사회제도가 상이한 국가들이 EU내 존재함. 이에 따라 EU 회원국가간의 분담 비용 및 배정 직불금 수준도 차이가 생김. 우리나라도 남·북간 경제협력 및 통합이 본격화 될 경우, 대한민국형 공동농업정책이 강구 될 수 있는지 또는 적용 가능한지 연구자로서 검토할 가치가 있음.

3) 와게닝겐 푸드밸리(네덜란드)

- 네덜란드는 2001년 동남부 지역개발청을 중심으로 와게닝겐지역 반경 30km 안에 산관학 협력체계인 푸드밸리 클러스터 조성.
 - 신사업·일자리창출, 연구능력 증대, 혁신지식연계 농식품사업 제공, 우수한 인적자원 공급, 국제 파트너쉽 강화
 - 설립과 운영에 있어 정부의 역할 조사
- 푸드밸리는 입주 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되고 현장 적용되어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음.
 - 혁신기술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정부(운영재단)의 입주 기업 및 연구기관을 위한 인센티브, 세제혜택 조사
- 공무원, 농업경영자,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푸드밸리는 참여 주체간의 지식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짐.
 - 이러한 협력으로 이루어진 성과사례 및 협력증진 전략 조사
- 푸드밸리 운영재단의 구성과 역할

4. 출장 일정(안)

일시	이동 및 주요 일정
9.22(일)	■ 인천공항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9.23(월)	■ 와게닝겐 대학 연구소 농업정책 전문가 면담
9.24(화)	■ 주 벨기에 EU대한민국 대사관 방문(벨기에 브뤼셀) ■ EU본부 농업정책 전문가 면담
9.25(수)	■ 와게닝겐 푸드밸리 방문
9.26(목) ~9.27(금)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 인천공항

※ 세부 일정은 현지사정에 의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소요예산: 체재비 \$3,367+393,200원(항공료 등 별도)

가. 항공료 및 수수료(비자발급 수수료, 여행자 보험료 등): 별도 연구원 지급규정 적용

나. 체재비 : \$2,167 (나등급 적용)

구분	출장자	일비 ¹⁾	식비 ²⁾	숙박비 ³⁾	소계
4박 6일	석준호 부연구위원	\$30/2×5일=\$75	\$59×5일-\$59/3×2일 =\$255	\$137×1.5×4일 =\$822	\$1,152
4박 6일	유주영 위촉연구원	\$26/2×5일=\$65	\$49×5일-\$49/3×2일 =\$212	\$123×1.5×4일 =\$738	\$1,015

※ 현지 차량 임차료가 포함되어 있어 5일의 일비 50%를 제외함.

※ 식비에서 회의 2식을 제외함.

※숙박비 실비정산(여비규정 제16조 6항 적용)

- 추가계상 사유: 암스테르담 주변의 숙소가 모두 숙박비가 많이 오른 상태임을 고려하여 숙박비 상황 조정 필요

【여비규정 제16조 6항】

- 여비규정 제16조 6항: ⑥ ~중략~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5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 현지이동경비(차량임차): \$800(보험료 및 유류비 포함)

- 임차기간 : 2019. 9. 22 ~ 26(5일간)
- 차량종류 : 예산범위 내에서 임차
- 임차업체 : 네덜란드의 현지 업체(Hertz 등)

라. 회의비 : \$400(총 2회)

- 회의 목적 및 내용 : 와게닝겐 대학 연구소 농업정책 전문가 면담, 주벨기에 EU 대사관 및 EU 본부 농업정책 전문가 면담

마. 공항교통비: 243,200원(나주-인천공항 왕복 철도요금, 121,600원×2명)

바. 조사사례품비: 150,000원(실비정산)

※ 지변과목: FTA 농업분야 투융자 성과 및 통상전략 방향에 관한 연구-여비, 회의비, 수용비